

도내 농협 사무소 8곳·직원 10명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전주농협 최혜경 지점장

장계농협 최진영 과장

개인 부문 각각 6·5연패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11일과 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1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북농협이 사무소 부문 8개 농축협, 개인부문 10명의 직원이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평가를 이뤘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연도대상은 한 해 동안 전국 최고의 보험판매실적을 기록한 농축협 사무소와 직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전북농협은 사무소 부문 ▲남원농협(박기열 조합장) ▲무진장축산농협(송재근 조합장) ▲정읍농협(유남영 조합장) ▲샘골농협(허수종 조합장) ▲스타인농협(김성주 조합장) ▲임실농협(최동선 조합장) ▲공덕농협(문홍길 조합장) ▲계화농협(이석훈 조합장) 등 8개 농축협이 연도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개인 부문 ▲금상(1명) 최혜경 지점장(전주농협) ▲동상(2명) 서정숙 계장(황토현농협), 조주환 지점장(동진강나눔축협) ▲우수상(2명) 오명숙 계장(전주김제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은 11일과 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1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북농협이 사무소 부문 8개 농축협, 개인부문 10명의 직원이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평가를 이뤘다고 밝혔다.

원주축협), 이해영 과장(신제인농협) ▲신인상(1명) 복양신 접장(남원농협)

▲첼린저상(4명) 임재석 실장(전주농협), 유경연 과장(정읍농협), 김혜원 과장(전주농협) ▲최진영 과장(장계농협)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주농협 최혜경 지점장과 장계농협 최진영 과장은 이번 개인 부문 수상으로 각각 생명보험 연도대상 6연패와 5연패를 달성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보험 보장분석부터 은퇴·재무설계까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책임지

는 명실상부한 전북농협 최고의 금융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숙 총국장은 "농가인구 감소, 노령화 심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높은 성과를 일궈낸 전북 농축협 일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농업인인전보험 등 농협생명만의 특화된 농업인 맞춤형 상품들을 활용하여 조합원들의 복지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북총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신협, 금융소비자보호현장 선포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지난 11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22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위원장 김윤식)'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현장을 선포했다.

이날 신협은 김윤식 회장을 비롯한 내부통제위원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천 원칙을 담은 신협 금융소비자보호현장을 선포하며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신협 금융소비자보호현장에는 ▲금융상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소비자의 학습적 선택을 지원한다 ▲피해 구제 및 민원 해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을 침해하는 불공정 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는 4가지 실천 원칙을 담았다.

또한 신협은 오는 8월, 일상 업무환경 속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실천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3대 실천 캠페인'을 시행한다. 캠페인 내용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내부통제 점검·지도, 인식 제고를 위한 이벤트 등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 권리 강화에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

국내 최초 가명정보 활용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전북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사업으로 추진해온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 수집·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금융상품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를 연계해 핀테크 기업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국내 최초로 가명정보를 분석·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공단 보유 데이터(지역이동통장정보 등 4종), 금융구미데이터(신용정보 등 54종), 수집데이터(예금·환율정보 등 56종) 등 총 114종 데이터(약 34억 건)를 무료로 제공한다.

플랫폼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https://datamps.or.kr)에서 사용절차를 거친 후

전북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 내 데이터 안심구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필요 시 심의를 거쳐 데이터 분석 결과물 반출도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을 오픈하고 국민 알 권리 종족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국민연금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장 기업자·현황·노령연금 현황 등 124종의 국민연금 통계데이터를 대국민 빅데이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협업기관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지역이동·현황·일자리 종합현황 등 11종의 표준형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정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으로 공단의 빅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사업 추진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전주시 재난지원금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전주시립상품권' 충전 이벤트 당첨자 경품 증정식을 12일 본점 1층 로비에서 진행했다.

전북은행, '돼지카드' 충전고객에 경품 지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전주시 재난지원금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전주시립상품권(돼지카드)' 충전 이벤트 당첨자 경품 증정식을 12일 본점 1층 로비에서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전주시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전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이벤트는 '전주시립상품권(돼지카드)' 기준 소지고객 및 신규 발급고객 중 이벤트 기간 내 전주시 재난지원금을 충전한 총 1,004명의 고객을 추첨해 1등 1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암마의자, 2등 2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어드레스, 3등 5명에게 골드바 3.75g(1돈)을 추첨을 통해 증정했으며, 참여상 990명에게는 돼지카드 충전금 5,000원의 행운을 전달했다.

전북은행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이번 이벤트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 제공과 관련된 이벤트 등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JB카드의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 맞춤형 훈련 사업 운영 내실 다지기

전북인자위, 올 1차

Skill-Up 간담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2022년 제1차 Skill-Up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군산시, 전북지역 4개 공동훈련센터(대한상공회의소 전북지역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교 익산캠퍼스 킷팅증합기술원) 등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훈련센터 사례 발표를 통해 남은 기간 내실 있는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인자위는 올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채용 연계형 구직자 양성훈련 4개 과정 80명, 재직자 향상 훈련 77개 과정 2,291명 등 총 81개 과정 2,371명을 목표로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816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북인자위는 도내 기업의 다양화 니즈를 반영한 과정 운영을 위해 매년 도내 1,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및 훈련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혁신선도 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전북지역혁신 프로젝트', 현장기반형 훈련을 공급하는 '일학습병행',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 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와 이·전직을 지원하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인자위는 이를 통해 올 해 총 4,000여명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1,300여명의 취·창업 인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2022년 제1차 'Skill-Up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해 매년 도내 1,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및 훈련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혁신선도 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전북지역혁신 프로젝트', 현장기반형 훈련을 공급하는 '일학습병행',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 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와 이·전직을 지원하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인자위는 이를 통해 올해 총 4,000여명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1,300여명의 취·창업 인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 흥보대사 위촉

일시 : 2022. 5. 12.(목) 14:00 장소 :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진흥청 스타청년농업인 위촉식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윤종철 원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업 발전 이끌 젊은 농업인 육성·지원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 흥보대사 25명 위촉

농업 현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 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0.78%에 불과하던 30대 이하 청년 세대의 농림농어업 종사 비율이 2020년 1.07%로 증가했다. 이들의 60%는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귀농을 결심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흥보대사로 위촉된 스타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스와트(SWOT) 분석을 실시해 맞춤형 상담과 협업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해 위촉된 스타청년농업인은 대

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청년농업인 25명이 선정됐다. 전북에는 4명이 선정됐다.

국립식량과학원은 흥보대사로 위촉된 스타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스와트(SWOT) 분석을 실시해 맞춤형 상담과 협업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해 위촉된 스타청년농업인은 대

상으로 스와트(SWOT) 분석을 실시하고 맞춤형 상담과 온라인 상가(쇼핑몰) 운영 교육을 진행했으며, 네이버 지능형 매장(스마트 스토어)과 전자상거래(위메프) 입점 지원을 지원했다.

올해 스타청년농업인은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전 분야

을 기반으로 협업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윤종철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청년농업인들이 흥보대사로 선정됐다"며 "이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더 많은 청년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X, 전주시 등과 '공간드림센터 개소' 뜻 모아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가 전주시(시장·김승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이영호)과 함께 공간정보 분야 청년기업을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LX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진흥원과 '지역ICT기업 창업지원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공사 최규원 부사장과 전주시 박형배 부시장, 진흥원 이영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간정보 청년기업 육성과 협업의 공간을 마련할 LX공간드림센터(전북) 개소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공사는 ▲LX 공간드림센터 시설조성 및 운영 ▲입주

기업 선정 및 관리 ▲공간정보 분야 청년기업 발굴 및 공간정보 특화 청년기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LX공간드림센터(전북) 입주기업 선발을 위해 올해 공간정보 청년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선별과 동시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와 진흥원은 전주시 소재 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에 LX공간드림센터(전북)가 입주할 공간을 제공한다.

공사는 앞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양충모)은 12일 새만금 동서도로에 위치한 누리생태공원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새만금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폐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에 버려진 각종 생활쓰레기들을 수거했다.

또한 지난달 5일 식목일에 식재한 곱슬 300본을 점검하고, 지주목 등을 정비했다.

윤용태 운영지원과장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는 새만금의 모든 장소가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